

메디슨의공학상 등 시상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회장:김형묵)는 구립 3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제1회 대한의용생체공학상, 메디슨의공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3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태수교수(충북대 의대 의공학교실)와1명의 「음영 분석에 의한 내시경 영상의 3차원 형체 추정에 관한 연구」 등 총4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한의용생체공학상에 민병구박사(서울대 의대 의공학과)가 수상하였고, 메디슨의공학상에 두재균박사(전북대 의대 산부인과) 김성곤박사(고려대 의대 정형외과) 김원기박사(삼성의료원 의공학과) 나종범박사(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가 각각 수상하였다.

저독성 난연화기술 개발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소장 : 강박광)는 동부화학(주)과 공동으로 최근 TV등 전기, 전자제품의 하우징(외장재, 케이스)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내충격성 폴리

스틸렌계 저독성 난연수지의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화학연구소 최길영·진문영박사팀과 동부화학(주) 정종구박사팀이 개발한 이 저독성 난연화기술은 현재 환경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의 할로젠계 난연제와는 달리 유해성 가스나 물질을 생성시키지 않는 비할로젠계 난연제를 채택해 미국 안전규격 UL94 V-0의 기준을 통과할 만큼 난연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저독성 난연 폴리스티렌수지는 무엇보다 난연제의 연소시 유독한 가스의 발생이 없어 인체에 거의 해가 없고 기계적 물성인 인장강도나 충격강도, 내열성, 가공성 등이 기존의 난연제품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으며 기존의 할로젠계 난연제품의 외장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등 여러 장점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난연화 기술의 적용에는 별도의 설비투자가 필요치 않으며 기존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즉시 생산이 가능하므로 원가 상승요인 없이 기존의 할로젠계 난연화 플라스틱의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저독성 난연화 플라스틱 재

료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분자 아카데미 열려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고분자학회(회장 : 김정엽)는 오는 2월14일~18일까지 5일간 국립공업기술원에서 제3회 고분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고분자 합성, 고분자 물성, 고분자가공 분야의 기초지식을 충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이와 아울러 현재 관심이 매우 높은 여러가지 고분자 응용 분야의 강좌가 첨가되었다.

한편 동학회는 오는 4월 14일~15일 양일간 성균관대학교(수원캠퍼스)에서 춘계정기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 유완)는 구립 1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94년도 제3회 학술발표회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김호철선임연구원(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의 「지역사회로부터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등 3

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수도권의 정비정책의 새로운 방향, 신도시 개발의 평가, 신도시 개발의 대안적 방안에 관한 논문발표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CVD 심포지엄 개최

한국진공학회

한국진공학회(회장 : 박동수)는 오는 2월16일~17일 양일간 성균관대학교(수원캠퍼스)에서 제8회 학술발표회에서 CVD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CVD기술은 화학, 화공, 재료, 기계, 전자, 진공기술 등 공정, 재료, 소자, 응용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종합기술이다. 동학회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 여러 전공분야에서 CVD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학술발표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학술발표회의 내용은 열, 플라즈마, 광CVD, CBE, MOMBE, 화학반응 메커니즘, 모델링, 장치설계, CVD 전구체, CVD공정에 의한 박막제

료, 도체, 절연체, 반도체, 유전체 등 각종 기능성 재료, 기억소자, 박막트랜지스터, 화합물 반도체, 광소자, 태양전지, 센서, wide band gap 반도체, 각종 기능성 소자, 기타 CVD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에너지·환경세미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1월28일 정부차원에서 수행된 여러 지역개발사업, 특히 주택 및 공업단지 개발과 같은 단위지역개발사업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RMA(Resource Management Associates)의 Dr. Foell회장을 초청, 단위지역 개발계획 수립시에

너지·환경측면에서 사전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 및 계획과정, 에너지수요 예측 및 공급체계, 환경영향 등에 대해 분석 및 평가방법(RESGEN/RAINS모델)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단위지역 또는 국가의 에너지·환경요인이 주변지역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RMA의 RAINS모델을 이용, 특정지역(부산, 인천)의 에너지·환경 영향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 최근 중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한반도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도식적 Simulation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향후 TRADP(두만강 개발계획)하에서 추진될 한국공단 설립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에너지·환경 계획과정에 관한 자문이 있었다.

韓·日합동기술워크숍 개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휴먼 인터페이스연구부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이틀간 동연구소에서 일본 음성번역통신연구소와 제1회 ETRI-ATR 합동 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본측은 ATR 음성번역통신연구소의 야마자키 소장등 8명이 참가, 이중 7명이 음성인식, 음성합성, 언어번역, 다중매체통신, 시스템통합, 음성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표했고, 우리측은 양재우 휴먼 인터페이스부장과 자동통역연구실 전원이 참가하여 이중 4명이 음성인식, 음성합성, 음성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93년 12월에 ATR 음성번역통신연구소와 ETRI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된 것인데 양해각서는 음성언어번역 연구분야에 관해 서로가 상대방을 상대국의 창구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과 6월에 2명의 연구원을 ATR에 파견했으며 양기관이 9개월에 한번씩 합동 기술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 처음으로 개최된 것

이다. 한편 동연구소는 ATR과 기술교류, 인력교류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돈독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C-STAR의 연구방향 정립에도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오는 '96년과 '99년에 예정된 C-STAR 기술시범에도 양기관이 협력하여 국제간 시범을 할 예정이다.

춘계학술강연 및 발표

대한금속학회

대한금속학회(회장 나형용)는 오는 4월28일 부산공업대학교에서 95년도 임시총회, 춘계학술강연 및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금속 및 기타재료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 RMA의 Dr. Foell회장(왼쪽 첫번째)이 에너지 보존형 지역개발사업 모델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사 투고 안내

본 「과학기술계동정」은 과학기술 관련학회 및 연구소 단체들의 학술행사를 비롯 기술개발 및 기타 동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홍보자료를 과총 출판팀 Tel (02)553-2183 Fax (02)553-2170>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